

가수 강산에, 배우 김하균, 제주부산 유세 현장 ‘깜짝 방문’ …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, 열렬한 지지 호소

- 제주 사는 강산에, 7일 오전 제주 유세 현장 찾아… 부산 출신 배우 김하균은 7일 오후 부산서 이 후보 지원
- 강산에, “한표 한표가 소중, 발같이 하는 심정으로 나와” … 히트곡 ‘넌 할수 있어’ 소절 활용해 지지 호소
- 김하균, 소화제 광고 장면 연출 웃음 유발 … ‘이재명을 대통령으로’ 뜻 담은 ‘이대로’ 구호로 호응 유도

가수 강산에 씨와 배우 김하균 씨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주 및 부산 유세 현장에 ‘깜짝 방문’ 해 이 후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호소했다.

먼저 7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 동문 로터리에서 진행된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강산에 씨는 ‘6년째 제주도에서 살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제주 도민이 될 사람’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“위기의 상황인 만큼 한표 한표가 너무도 소중해 발같이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” 라며 “열심히 SNS를 통해서 (지지 호소) 하고 있다. 소년공으로 살아온 이 후보의 삶에서 알 수 있듯 (이 후보라면)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” 고 밝혔다.

이어 자신의 히트곡인 ‘넌 할수 있어’ 의 소절을 활용해 “할 수 있을 거야. 할 수가 있어. 그게 바로 누구?” 라며 “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” 등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능숙한 무대 매너로 이 후보의 등장을 알리기도 했다.

소화제 광고로도 유명한 배우 김하균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부산 창선 삼거리 유세 현장에 마련된 대형 화면 속 영상을 통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.

‘주가조작’, ‘선제타격’, ‘검찰왕국’, ‘주 120시간’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‘이재명’ 이라는 소화제를 만나 불편한 속을 해소하는 영상 속 주인공으로 등장해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한 김하균 씨는 무대에 등장해서도 영상 속 연기를 그대로 재현하며 열띤 호

응을 받았다.

김하균 씨는 “방금 전 보고 난 영상을 본 이 후보가 ‘사이다 이재명, 짹 막힌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국민 소화제가 되겠다’ 라는 댓글을 달아줬다” 라고 소개했다.

이어 관객들에게 ‘이재명을 대통령으로’ 라는 의미가 담긴 ‘이대로’ 라는 구호를 제안한 뒤 “나를 위해,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” 를 외치며 관객들이 ‘이대로’ 구호를 외칠 수 있도록 유도, 현장 분위기를 후끈 달구기도 했다.

민주당 관계자는 “손병호, 장동직, 박혁권, 이원중, 변영주, 김의성, 정두홍, 서승만, 강성범, 이은미 등 많은 문화 예술인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” 라며 “특히 유세 현장까지 찾아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유세 현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” 고 말했다. (끝)

[첨부] 현장 사진

○ 제주 유세 (가수 강산에)





○ 부산 유세 (배우 김하균)



